

《老乞大》·《朴通事》에 보이는 熟語의 표현에 대하여*

梁伍鎭**

< 목 차 >

1. 머리말
2. 熟語의 개념과 범위
3. <老朴>에 사용된 熟語
4. 熟語의 위치 설정과 제간본에서의 변화
5. 熟語 설정에 나타난 문제점
6. 맺음말

1. 머리말

熟語는 해당 민족의 역사·사회·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특수한 표현 형태로 서, 외국어 학습자에 있어서 고급 단계의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숙어의 습득이 필수적인 요구라 할 수 있다. 한편 숙어는 그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이해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숙어의 습득을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문화적 측면의 교육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상

* 본 연구는 德成女子大學校 2010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第2回 譯學書學會 國際學術會議”(2010.8.13: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구두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德成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황에서, 해당 민족의 문화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속어에 대한 습득과 활용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근년에 우리 학계에서는 중국어 속어 교육에 관한 논문들이 적지 않게 발표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국어 교재,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체로 편찬한 중국어 교과서의 실태를 살펴 보면 그다지 이상적이지 못한 실정임을 발견하게 된다.¹⁾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지난 수세기에 걸쳐 중국어 譯官 양성을 위하여 사용된 회화교과서 《老乞大》·《朴通事》(이하 <老朴>)에 수록된 속어의 사용 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당시 중국어에 유행되던 속어의 종류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게 될 것이며 외국어 학습교재를 편찬함에 있어서 우리 선조들의 소중한 경험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熟語의 개념과 범위

熟語에 대한 중국 학계의 주장을 살펴보면 우선 《辭海》(1989:1776)에서는 “속어는 언어 중에 고정된 단어결합이나 문장 형태로서, 사용할 때 임의로 그 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成語·諺語·格言·慣用語·歇后語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²⁾ 北京大學 중문학과 교재인 《現代漢語》(1997:246)에 의하면 “어휘 중의 成語·諺語·歇后語·慣用語 등을 통틀어 속어라고 하며 또한 이것을 고정된 언어 구조라고도 부른다. 속어는 구조가 비교적 복잡하고 구성 성분이 고정되어 있으며 흔히 하나의 완벽한 의미를 나타낸

1) 金胤淑(2001:42)에서 조사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중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속담(성어): (1)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대한교과서(1984), 2(2)/법문사(1990), 7(9)/부민문화사(1996), 2(2)/송산출판사(1996), 1(6)/진명출판사(1996), 2(5); (2) 대학의 중급중국어 교재: 서울대학교, 《中級中國語》(2000), 5(5)/방송통신대학교, 《中級中國語》I·II(2000), 3인, 3(3)·1(7)/연세대학교, 《대학중국어-중급》(1998), 8(65)/한국외국어대학교, 《中級中國語》(2000), 2(34).

2) “熟語: 語言中定型的詞組或句子。使用時一般不能任意改變其組織。包括成語、諺語、格言、慣用語、歇后語等。”(《辭海》:1989:1776, 上海辭書出版社)

다.”고 설명하고 있다.³⁾

崔希亮(2005:1)에 의하면 “이른바 熟語란 다듬어진 언어 형식으로 고정된 표현 형태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사람들이 장기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점차 고정된 것이다. 속어는 특정된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므로 흔히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속어는 구조상에 있어서 나름대로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임의로 뜯어고칠 수 없다..... 또한 속어는 상위 개념으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무릇 고정된 용법이나 습관적 용법, 굳어진 단어결합이나 문장 같은 것이 모두 망라된다.”고 하였다. 즉 成語·慣用語·俗語·諺語·歇后語 등이 망라되며 범위를 더 확대하면 格言(書山有路勤爲徑, 學海無涯苦作舟 등)·名聯(貧居鬧市無人問, 富在深山有遠親 등)·流行市語(天要下雨, 娘要改嫁, 隨它去吧 등)·流行歌謠(開不完的會, 站不完的隊, 寫不完的檢討, 流不完的淚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

熟語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데, 우선 《국어대사전》(이희승 편) 해석을 보면 “1)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합하여 하나의 뜻을 나타내어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말(복합어·합성어), 2) 특유한 뜻을 나타내는 성구·관용어·익은 말”로 설명하고 있다.⁵⁾ 그리고 金光海(1993:162)에서는 관용어와 속어를 동일시하고 있고, 金文昌(1990:151)에서는 “大概念으로 ‘慣用語’를, 그리고 그 下位 小概念에 ‘속어’와 同位 概念으로서 ‘(故事)成語·禁忌語·吉兆語·比喻語·俗談·수수께끼’ 등을 설정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朴榮順(1985:108)에서는 “속어와 관용어는 서로 독립된 영역이나 공통되는 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아직 체계적인 학설이 정립되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詞彙中也包括成語、諺語、歇后語、慣用語等, 總起來叫熟語, 也叫固定結構。熟語的結構比較複雜, 結構和構成成分比較固定, 意義往往有整體性。(《現代漢語》:1997:246, 北京大學中文系 現代漢語教研室 編, 北京 商務印書館。

4) “所謂熟語, 就是指加工提煉過了的語言形式, 它們是固定的說法,.....它們都是在人們的長期習用中慢慢地固定下來的, 每一個熟語都表達一個特定的意思, 往往不能望文生義, 在結構上它們都有自己的特點, 不能隨意改動.....熟語是一個上位概念, 它的範圍很大, 凡是固定用法、習慣用法、現成的詞組或短語都在熟語的範圍之內。”(崔希亮:2005:1)

5) 《국어대사전》 증보판(1994:2194), 이희승 편, 서울 民衆書林.

3. <老朴>에 사용된 熟語

3.1 <老乞大>의 熟語⁶⁾

《老乞大》의 속어는 <原老>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原老>에는 上·下卷의 구분이 없으나 <老諺>에 근거하여 上·下卷을 표시하였다. 《老乞大》제간본에 나타난 속어의 변화는 본고 4.2에서 다루기로 한다.

上卷:

- 1) A-前不著村, 後不著店。(〈原老〉 3뒤)
-앞으로는 村(마을)에 다다르지 못하고 뒤로는 店(여관)에 다다르지 못하다/ 앞뒤로 인적이 드물다/ 앞뒤로 목을 만힌 곳이 없다("환경이나 旅路가 삭막함"을 나타냄)
- 2) A/B/C/D-常言道: 馬不得夜草不肥, 人不得橫財不富。(〈原老〉 9뒤)
-속담에 이르기를 맡은 밤 여물을 먹지 못하면 살이 찌지 아니하고 사람은 딴 재물(횡재)을 얻지 못하면 부유해지지 못한다 하였다
- 3) A/B/C/D/E-常言道: 常做賊心, 莫偷他物。(〈原老〉 10앞)
-속담에 이르기를 항상 도둑질 하려는 마음을 경계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하였다
- 4) A/B/C-三人同行, 小的苦。(〈原老〉 10앞)
-세 사람이 동행을 하면 나이 어린 사람(젊은 사람)이 고생을 한다
- 5) A/B/C-慣曾出外偏憐客, 自己貪盃惜醉人。(〈原老〉 12앞)
-나들이에 익숙한 사람이 나그네를 편애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취한 사람을 아낀다
- 6) A/B/C/D/E-飢時得一口, 強如飽時得一斗。(〈原老〉 12뒤)
-배고플 때 한 입 얻는 것이 배부를 때 한 말(斗) 얻는 것보다 낫다
- 7) A/B/C/E-好看千里客, 萬里要傳名。(〈原老〉 12뒤)

6) 《老乞大》 제간본의 부호: A(《原本老乞大》, 이하 <原老>: 고려 말), B(《翻譯老乞大》, 이하 <翻譯老>: 1510년대), C(《老乞大諺解》, 이하 <老諺>: 1670년), D(《老乞大新釋》, 이하 <老新>: 1761년), E(《重刊老乞大諺解》, 이하 <重老諺>: 1795년)

- 천리 가는 나그네를 잘 살펴 보내면 만리에 이름을 전하게 되리라
- 8) A/B/C—客不犯二主。(〈原老〉 15앞)
- 한 손님은 두 주인의 신세를 지지 않는다/ 한 고객은 두 주인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

下卷:

- 9) A-休道黃金貴, 安樂最直錢。(〈原老〉 21앞)
- 황금이 귀하다 하지 말라, 편안함이 가장 값지다 하였다
- 10) A/B/C/D/E-家書直萬金。(〈原老〉 21앞)
- 家書(집에서 온 안부편지)가 만금 값이라 하였다
- 11) A/B/C/D/E-千零不如一頓。(〈原老〉 22앞)
- 천 가지 날 것이 한 무더기 것만 못하다
- 12) A/B/C-官憑印信, 私憑要約。(〈原老〉 25앞)
- 公의인 일은 官印(印信)에 의거하고 私의인 일은 약속(계약)에 의거한다 하였다
- 13) A/B/C/D/E-常言道: 老實常在, 脫空常敗。(〈原老〉 31앞)
- 속담에 이르기를 성실한 것은 항상 오래가고 허황한 것은 항상 패한다 하였다
- 14) A-缸投水裏出來, 旱地裏行不得, 車子載著有: 車子水裏去呵, 水裏行不得, 缸裏載著有。(〈原老〉 31뒤)
- 배는 물에서 나오면 육지에서 다니지 못하므로 반드시 수레에 실어야 하고, 수레는 물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다니지 못하므로 반드시 배에 실어야 한다/ 배는 육지로 나오면 다니지 못하므로 수레에 실어야 하고, 수레는 물속에 들어가면 다니지 못하므로 배에 실어야 한다
- 15) A-一箇手打呵, 響不得有: 一箇脚行呵, 去不得有。(〈原老〉 31뒤)
-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한 발로 걸으면 가지를 못한다 하였다
- 16) A-常言道: 掩惡揚善。(〈原老〉 31뒤)
- 속담에 이르기를 나쁜 일은 덮어두고 좋은 일은 드러내다 하였다
- 17) A/B/C/D/E-宜假不宜真。(〈原老〉 38앞)
- 가짜 것이 마땅하고 진짜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진품보다 짝퉁이 낫다
- 18) A/B/C-四海皆兄弟。(〈原老〉 39뒤)
- 천하(四海)는 모두 한 형제이다

3.2 <朴通事>의 熟語7)

《朴通事》의 속어는 <鬪朴>(上)과 <朴諺>(中·下)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朴通事》 제간본에 나타난 속어의 변화는 본고 4.2에서 다루기로 한다.

上卷:

- 1) A/B/C-人生一世, 草生一秋。(〈鬪朴〉 상1앞)
-사람은 한 세상만 살고 풀은 한 계절만 산다
- 2) A/B-古人道: 有酒有花, 以爲眼前之樂; 無子無孫, 盡是他人之物。(〈鬪朴〉 상7앞)
-옛사람이 이르기를 술이 있고 꽃이 있으면 눈앞의 즐거기를 할 것이요, 자식이 없고 손자가 없으면 모두 남의 것이 된다 하였다
- 3) A/B-千零不如一頓。(〈鬪朴〉 상13앞)
-천 가지 날 것이 한 무더기 것만 못하다
- 4) A/B-常言道: 話不說不知, 木不鑽不透。(〈鬪朴〉 상14앞)
-속담에 이르기를 말은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나무는 뚫지 않으면 관통되지 않는다 하였다(“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맞이다”와 같은 의미)
- 5) A/B/C-好物不賤, 賤物不好。(〈鬪朴〉 상15앞)
-좋은 물건은 싸지 않고 싼 물건은 좋지 않다 하였다
- 6) A/B/C-人不得橫財不富, 馬不得夜草不肥。(〈鬪朴〉 상22앞)
-사람은 만 재물(횡재)을 얻지 못하면 부유해 지지 못하고 말은 밤 여물을 먹지 못하면 살이 찌지 아니하니라
- 7) A-常言道: 高碁輸頭盤。(〈鬪朴〉 상24앞)
-속담에 이르기를 바둑의 고수는 첫 판을 저준다 하였다
- 8) A/B/C-君子一言, 快馬一鞭。(〈鬪朴〉 상26앞)
-군자는 한번 말하면 반드시 실행하고 잘 달는 말은 한 대만 때리면 끝까지 달린다 하였다(“장부 일언 중천금”과 같은 의미)
- 9) A/B-易經云: 積善之家, 必有餘慶。(〈鬪朴〉 상31앞)
-《易經》에 이르기를 積善을 많이 한 집에는 반드시 다른 경사(餘慶)가 따른다 하였다

7) 《朴通事》 제간본의 부호: A(《鬪對朴通事》, 이하 <鬪朴>:1510년대), B(《朴通事諺解》, 이하 <朴諺>:1677년), C(《朴通事新釋諺解》 이하 <朴新諺>:1765년).

- 10) A/B-十箇指頭也有長的短的。(〈飜朴〉 상32앞)
-열 손가락에도 길고 짧은 것이 있다
- 11) A/B-覓得高麗錢, 大快三十年。(〈飜朴〉 상33앞)
-高麗 돈을 얻으면 삼십년이 크게 즐겁다 하였다
- 12) A/B-常言道: 人貧只爲慳, 少債快說謊。(〈飜朴〉 상35뒤)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은 가난하면 인색해지고 빚을 지면 쉽게 거짓말을 한다 하였다
- 13) A/B/C-常言道: 一年經蛇咬, 三年怕井繩。(〈飜朴〉 상37앞)
-속담에 이르기를 한 해 뱀에 물리면 삼년은 두렛줄도 무서워한다 하였다
- 14) A/B-貴人難見。(〈飜朴〉 상37뒤)
-귀한(높은)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다
- 15) A/B-常言道: 狗有濺草之恩, 馬有垂韁之報。(〈飜朴〉 상43뒤)
-속담에 이르기를 개는 풀에 물을 뿌려 은혜를 갚고 말은 고삐를 내려 보답을 한다 하였다
- 16) A/B/C-常言道: 一夜夫妻百夜恩。(〈飜朴〉 상47앞)
-속담에 이르기를 하룻밤에 맺은 부부가 백일밤의 애정을 쌓는다 하였다(“하룻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와 같은 의미)
- 17) A/B-家貧不是貧, 路貧愁殺人。(〈飜朴〉 상54앞)
-집에서 가난한 것은 가난이 아니고 길 떠나서 가난한 것이 (가장) 사람을 근심케 한다 하였다
- 18) A/B-張弓有別力, 飲酒有別腸。(〈飜朴〉 상55앞)
-활을 당기는 데는 별도의 힘이 있고 술을 마시는 데는 별도의 장(別腸)이 있다 하였다.
- 19) A/B/C-古人道: 養子方知父母恩。(〈飜朴〉 상58앞)
-옛사람이 이르기를 자식을 길러보아야 부모의 은혜를 안다 하였다
- 20) A/B-萬事不由人計較。(〈飜朴〉 상64앞)
-만사는 사람의 뜻(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 21) A/B/C-常言道: 有心拜節, 寒食不遲。(〈飜朴〉 상67앞)
-속담에 이르기를 (진정) 세배드릴 마음이 있다면 한식날도 늦지 않다 하였다
- 22) A/B-說道: 人生七十古來稀。(〈飜朴〉 상76앞)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이 일흔까지 살기는 예로부터 드물다 하였다
- 23) A/B-常言道: 今日脫靴上炕, 明日難保得穿。(〈飜朴〉 상76앞)
-속담에 이르기를 오늘 신을 벗고 방구들에 오르지만 내일 다시 신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하였다

中卷:

- 24) B-古人道: 因風吹火, 用力不多。(〈朴諺〉 중2앞)
-옛사람이 이르기를 바람을 빌려 불을 붙면 힘이 많이 들지 않는다 하였다
- 25) B-大人不見小人過。(〈朴諺〉 중3앞)
-큰 인물(大人)은 소인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 하였다
- 26) B/C-遠行知馬力, 日久見人心。(〈朴諺〉 중14뒤)
-멀리 가봐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오래 되어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27) B-故人誠信病中知。(〈朴諺〉 중16뒤)
-옛 친구의 진실된 마음은 병석에서 알 수 있다
- 28) B/C-人離鄉賤, 物離鄉貴。(〈朴諺〉 중17뒤)
-사람은 고향을 떠나면 천해지고 물건은 고향을 떠나면 귀해진다 하였다
- 29) B/C-常言道: 男兒無婦財無主, 婦人無夫身無主。(〈朴諺〉 중17뒤)
-속담에 이르기를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 임자 없는 재물이고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임자 없는 몸이라고 하였다
- 30) B-古人道: 隔簾聽笑語, 燈下看佳人。(〈朴諺〉 중18앞)
-옛사람이 이르기를 주렴을 사이에 두고 웃음소리를 듣고 등잔 아래서 미인을 본다 하였다(“더 예쁘게 보인다”는 의미)
- 31) B-有緣千里能相會, 無緣對面不相逢。(〈朴諺〉 중19앞)
-인연이 있으면 천리밖에 있어도 만날 수 있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도 만나지 못한다 하였다
- 32) B-一針投海底, 尙有可得日: 一失人身後, 萬劫再逢難。(〈朴諺〉 중24앞)
-바늘을 바다 속에 떨어뜨리면 오히려 얻을 날이 있지만 사람의 몸을 한번 잃으면 萬劫이 지나도 다시 만나기 어렵다 하였다
- 33) B-常言道: 常防賊心, 莫偷他物。(〈朴諺〉 중25앞)
-속담에 이르기를 항상 도둑질 하려는 마음을 경계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하였다
- 34) B/C-常言道: 若作非理, 必受其殃。(〈朴諺〉 중28앞)
-속담에 이르기를 이치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재앙을 받는다 하였다
- 35) B-妻賢夫省事, 官清民自安。(〈朴諺〉 중29앞)
-아내가 어질면 남편이 덜 힘들고 관청이 맑으면 백성이 스스로 편안하다 하였다
- 36) B-貌隨福轉。(〈朴諺〉 중31뒤)
-얼굴은 복에 따라 변한다 하였다
- 37) B-常言道: 逢山開路, 遇水迭橋。(〈朴諺〉 중33앞)

- 속담에 이르기를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는 놓는다 하였다
- 38) B/C-古人道: 無功食祿, 寢食不安。(〈朴諺〉 중34뒤)
-옛사람이 이르기를 功이 없이 祿俸을 먹으면 침식이 편치 않다 하였다
- 39) B-常言道: 小心必勝。(〈朴諺〉 중36앞)
-속담에 이르기를 조심하면 반드시 이긴다 하였다/ 신중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 40) B/C-古人道: 家富小兒嬌。(〈朴諺〉 중41앞)
-옛사람이 이르기를 집이 부유하면 아이가 교만스럽다 하였다
- 41) B-古人道: 家齊而後國治。(〈朴諺〉 중45앞)
-옛사람이 이르기를 집안을 바르게 한 후에 나라를 다스린다 하였다
- 42) B-常言道: 命來鐵也爭光, 運去黃金失色。(〈朴諺〉 중46앞)
-속담에 이르기를 命이 오면 쇠도 빛을 내고 運이 가면 황금도 빛을 잃는다 하였다
- 43) B-老實常在, 脫空常敗。(〈朴諺〉 중47뒤)
-성실한 것은 항상 오래가고 허황한 것은 항상 패한다 하였다
- 44) B-死不在老少。(〈朴諺〉 중49뒤)
-죽는 것은 老少에 달려있지 않다 하였다/ 죽음은 나이순이 아니다
- 45) B-先小人後君子。(〈朴諺〉 중50앞)
-먼저 소인이 되고 나중에 군자가 된다 하였다/ 귀에 거슬리는 말(원칙적인 말)은 먼저 해 둔다。(“丑話說在前邊”과 같은 의미)
- 46) B-常言道: 矮子呵欠, 氣兒不長。(〈朴諺〉 중51앞)
-속담에 이르기를 난쟁이는 하품을 해도 기운이 길지 않다 하였다(키 작은 사람을 조롱하는 말)
- 47) B-福不至, 萬事難。(〈朴諺〉 중53앞)
-복이 이르지 않으면 만사가 어렵다 하였다
- 48) B-仰面唾天。(〈朴諺〉 중58앞)
-고개를 젖히고 하늘에 침 뱉기이다
- 49) B/C-常言道: 風不來, 樹不搖; 雨不來, 河不漲。(〈朴諺〉 중58앞)
-속담에 이르기를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비가 오지 않으면 강물이 넘치지 아니한다 하였다
- 50) B/C-常言道: 衙門處處向南開, 有理無錢休入來。(〈朴諺〉 중60뒤)
-속담에 이르기를 관청의 문은 남쪽을 향하여 열려있으나 도리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들어오지 말라 하였다(“有錢無罪, 無錢有罪”와 같은 말)

下卷:

- 51) B/C-古人道: 休道黃金貴, 安樂直錢多。(〈朴諺〉 하1뒤)

- 옛사람이 이르기를 황금이 귀하다 하지 말라, 편안함이 가장 값지다 하였다
- 52) B-拙匠人, 巧主人。(〈朴諺〉 하6앞)
- 서투른 匠人이나 영리한 주인이라 하였다(“일꾼은 솜씨가 서툴러도 주인이 영리하면 일을 잘해낼 수 있다”는 의미)
- 53) B/C-休尋海上方, 自有神仙藥。(〈朴諺〉 하7뒤)
- 神仙의 처방(海上方/仙方)을 찾지 말라, 자연히 신선약이 있다 하였다
- 54) B-常言道: 能蓋萬間房, 夜眠一廈間。(〈朴諺〉 하13뒤)
- 속담에 이르기를 만 칸 방을 지어도 밤에는 한 칸 방에서 잔다 하였다
- 55) B-古人道: 苦盡甘來。(〈朴諺〉 하15앞)
- 옛사람이 이르기를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고 하였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 56) B/C-禍不單行。(〈朴諺〉 하16앞)
- 禍는 홀로 오지 않는다(“엮친 데 덮치다”와 같은 의미)
- 57) B-閉門屋裏坐, 禍從天上來。(〈朴諺〉 하16뒤)
- 문을 닫고 집안에 앉아 있어도 재앙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였다
- 58) B-古人道: 殺人一萬, 自損三千。(〈朴諺〉 하25앞)
-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람 만 명을 죽이면 스스로도 삼천 명을 잃는다 하였다
- 59) B-寸心不昧, 萬法皆明。(〈朴諺〉 하27뒤)
- 寸心이 어둡지 아니하면 萬法이 모두 밝다 하였다
- 60) B-常言道: 一箇去, 百箇來。(〈朴諺〉 하34앞)
- 속담에 이르기를 하나가 가면 백이 온다 하였다(“손님에게 조그마한 호의를 베풀면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의미)
- 61) B/C-人不可貌相, 海不可斗量。(〈朴諺〉 하36앞)
-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바닷물은 말(斗)로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 62) B-常言道: 寸鐵入木, 九牛之力。(〈朴諺〉 하36뒤)
- 속담에 이르기를 寸鐵이 나무에 들어가는 데는 아홉 마리 소의 힘을 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 63) B/C-常言道: 管山喫山, 管水喫水。(〈朴諺〉 하37뒤)
- 속담에 이르기를 산을 관리하면 산의 것을 먹고 살고 물을 관리하면 물의 것을 먹고 산다 하였다
- 64) B-接客不如送客。(〈朴諺〉 하39앞)
- 손님을 마중하는 것이 손님을 배웅하는 것만 못하다
- 65) B-古人道: 送君千里, 終有一別。(〈朴諺〉 하39뒤)
- 옛사람이 이르기를 천리를 배웅해도 마침내는 헤어져야 한다 하였다

- 66) B/C-常言道: 畫虎畫皮難畫骨, 知人知面不知心。(〈朴諺〉 하40뒤)
-속담에 이르기를 범은 가죽은 그러도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은 얼굴은 알아도 마음은 알지 못한다 하였다(“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와 같은 의미)
- 67) B/C-三寸氣在千般有, 一日無常萬事休。(〈朴諺〉 하43뒤)
-약간의 숨(三寸氣)이 붙어있으면 천 가지가 있으나 하루라도 숨이 넘어가면 만사가 그만이다
- 68) B/C-古人道: 夜飯少一口, 活到九十九。(〈朴諺〉 하45앞)
-옛사람이 이르기를 저녁밥을 한 술 적게 먹으면 아흔아홉을 산다 하였다
- 69) B-常言道: 好兒不看春, 好女不看燈。(〈朴諺〉 하49앞)
-속담에 이르기를 착한 남자는 봄놀이 구경을 하지 않고 착한 여자는 등불놀이 구경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70) B/C-常言道: 捉賊見賊, 厮打驗傷。(〈朴諺〉 하55앞)
-속담에 이르기를 도둑을 잡는 데는 장물을 보아야 하고 싸움을 가리는 데는 상처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였다
- 71) B-古人道: 君子不出戶而知天下。(〈朴諺〉 하61뒤)
-옛사람이 이르기를 군자는 문밖에 나가지 않아도 세상일을 안다 하였다
- 72) 古人有言: 賣劍賣與烈士, 賺粉贈與佳人。(〈朴諺〉 하62앞)
-옛사람이 이르기를 칼은 영웅에게 팔고 연지와 분은 미인에게 준다 하였다

이상 《老乞大》에는 18개의 속어가 등장하고 《朴通事》에는 무려 72개의 속어가 수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두 교재에 사용된 속어의 숫자상의 이러한 차이는 본문 내용의 분량과도 관련이 있겠으나 주로는 교재 난이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즉 《老乞大》가 기초 단계 會話書라면 《朴通事》는 고급 단계의 회화서인 만큼 후자에서 속어의 습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老朴>에서 중복하여 사용된 속어는 다음과 같은 5개뿐이다.

- 1) 人不得橫財不富, 馬不得夜草不肥。(〈原老〉 9뒤/〈飜朴〉 상22앞)
- 2) 常言道: 常做(防)賊心, 莫偷他物。(〈原老〉 10앞/〈朴諺〉 중25앞)
- 3) 休道黃金貴, 安樂直錢多。(〈原老〉 21앞/〈朴諺〉 하1뒤)
- 4) 千零不如一頓。(〈原老〉 22앞/〈飜朴〉 상13앞)
- 5) 老實常在, 脫空常敗。(〈原老〉 31앞/〈朴諺〉 중47뒤)

이러한 사실은 당시 <老朴>의 편찬자들이 본 교재의 장면 설정과 속어의 선정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熟語의 위치 설정과 諸刊本에서의 변화

4.1 熟語의 위치 설정

속어의 위치 설정을 보면 《老乞大》에는 2개가 대화 장면의 종결 부분에 나타나고 나머지 16개는 대화 장면의 중간 부분에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朴通事》에서는 12개만 중간 부분에 나타나고 나머지 60개는 모두 대화가 마무리되는 종결 부분에서 대화 내용을 요약하는 형식으로 설정되었다.

먼저 《老乞大》의 용례를 일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중간 부분:

(1) 중국상인: 咱們輪着起來, 勤喂馬. 常言道: 馬不得夜草不肥, 人不得橫財不富. 却休槽兒平直到明. 咱們拴上, 馬喫一和草時飲水去.

-상넛 말소매 널오더 미리 밤 플 몬 머그면 솔지디 아니 호고 라르미 뽏 천 곳 몬 어드면 가스며디 몬흐느니라(<飜老> 상32앞)

현대역: 속담에 이르기를 맡은 밤 여물을 먹지 못하면 살이 찌지 아니하고 사람은 뽏 재물(횡재)을 얻지 못하면 부유해지지 못한다 하였다

장면 설정: (老24)⁸⁾ 상인들이 瓦店에 투숙하면서 밤에 말여물을 먹이는 장면으로, 중국 상인이 밤에 순번으로 일어나 말에게 여물을 먹일 것을 제안하면

8) 이 번호는 <老諺>에 근거한 문단의 순서이다. <老諺>은 총 107개 문단(上卷 54개, 下卷 53개)으로 나뉘었다.

서 이 숙어를 사용하여 말은 밤에 여물을 잘 먹어야 살이 찐다는 말 사육에 관한 상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같은 장면에서 그 뒤에도 대화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다.

(2) 주인: 有甚麼定害處! 喫了些淡飯, 又沒甚麼好茶飯.

중국상인: 休那般說, 不當. 飢時得一口, 強如飽時得一斗. 我正飢渴時, 主人家這般與茶飯喫, 怎生忘的你!

-골픈 제 훤 입 어더 마구미 브른 제 훤 말 어둡두곤 더으니(<飜老> 상43 뒤)

현대역: 배고플 때 한 입 얻는 것이 배부를 때 한 말(斗) 얻는 것보다 낫다

장면 설정: (老33) 상인들이 여로에서 한 민가에 들러 식사 대접을 받고, 친절한 집주인이 말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하인을 시켜 아침 식사를 보내 주는 장면으로, 집주인이 반찬도 별로 없는 식사를 대접한 것이라고 겸손의 말을 하자 중국 상인이 이 숙어를 사용하여 어려울 때 받는 작은 도움이 가장 소중함을 강조하는데, 뒤에도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 종결 부분:

(1) 주인: 量這些淡飯, 打甚麼緊, 偏我不出外? 出外時 也和你一般.

중국상인: 大哥說的是, 慣曾出外偏憐客, 自己貪盃惜醉人.

-일죽 외방의 나든니기 니그면 일편도이 나그네를 예엿비 너기고 나옴 수올 탐훤면 취훤 사르물 앓기느니라(<飜老> 상41뒤)

현대역: 나들이에 익숙한 사람이 나그네를 편애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취한 사람을 아긴다

장면 설정: (老31) 상인 일행이 생면부지의 길손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집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집주인이 자신도 길을 떠나면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겸손의 말을 하자 중국 상인이 이 숙어를 사용하여 길 떠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집주인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2) 중국상인: 我曾打聽得, 高麗地面裏賣的貨物, 十分好的倒賣不得, 只宜將就的貨物, 倒着主兒快。

고려상인: 可知! 大哥你說的正是。我那裏好的歹的不識, 則揀賤的買。

중국상인: 正是“宜假不宜真”。

-정히 거죽 거슨 맛당하고 진짓 거슨 맛당티 아니흐니라(<鬪老> 하67앞)

현대역: 그거야말로 가짜 것이 마땅하고 진짜 것이 마땅치 아니한 셈이다(진품보다 짝퉁이 낫다)

장면 설정: (老103) 고려에 돌아가서 팔 물건을 구입하려고 중국 상인의 도움을 청하는 장면에서 고려에서는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을 구별 못하여 짝물건이 오히려 잘 팔린다는 고려 상인의 말을 듣고 중국 상인이 대화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 이 속어를 사용하여 당시의 사회 풍토를 반영하고 있다.

다음은 《朴通事》의 용례를 일부 들어 보기로 한다.

1) 중간 부분

(1) 갑: 你說都是好的, 怎麼無一個中使的?

을: 十箇指頭也有長的短的。有的是獐皮裏, 你自揀着要。(<鬪朴> 상32앞)

-열숯가락도 또 기니 더르니 잇느니

현대역: 열 손가락에도 길고 짧은 것이 있다.

장면 설정: (朴15)⁹⁾ 獐皮(양가죽의 일종) 가게에서 손님과 가게 주인에게 다 좋은 물건이라 하더니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자, 가게 주인이 이 속어를 사용하여 물건이 다 좋을 수는 없으니 잘 골라 보라고 권한다. 그리고 계속하여 손님과 가게주인이 흥정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2) 중국인 教授: 咳, 美哉! 張編修有此好文官。古人道: 君子不出戶而知天下, 信然。安置, 韓先生, 咱去也。

고려인 秀才: 何須謙讓, 不當家, 喫些淡茶去不妨。先生且坐一坐。(<朴諺> 하61뒤)



9) 이 번호는 <朴諺>에 근거한 문단의 순서이다. <朴諺>은 총 106개 문단(上卷 39개, 中卷 38개, 下卷 29개)으로 나뉘었다.

-古人이 닐오더 君子는 戶에 나디 아니 하여셔 天下를 안다 하니

현대역: 옛사람이 이르기를 군자는 문밖에 나가지 않아도 세상일을 안다고 하였다

장면 설정: (朴106) 중국인 교수 두 명(沈씨와 葛씨)이 高麗에서 온 秀才(韓씨)에게 高麗의 建國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속어를 사용하여 앉은 자리에서 견문이 많이 넓어졌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어서 중국인 교수들이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자 교려인 수재가 만류하며 고려의 紙筆墨을 선물하고 중국인 교수들이 고마움의 인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2) 종결 부분

(1) 갑: 太醫哥, 你教與我這好法兒。

을: 將指頭那瘡口上, 着唾沫白日黑夜不住的搽。那們時便消了。

갑: 眞箇好法兒, 太醫哥不說時, 却怎麼知道。常言道: 話不說不知, 木不鑽不透。

-상넷말소매 닐오더 말스물 아니 니르면 아디 묻히고 남급 들디 아니면 스못디 묻흐느니라(<鬮朴> 상14앞)

현대역: 속담에 이르기를 말은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나무는 뚫지 않으면 관통되지 않는다 하였다

장면 설정: (朴5) 얼굴에 난 종기(瘡)를 치료하러 太醫를 찾는 장면에서, 太醫가 간단한 치료법을 알려 주자 환자가 이 속어를 사용하여 태의가 알려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2) 갑: 咳, 眞箇好標致(영노술갑다-지혜롭다), 便猜着了。

을: 你說甚麼話, 好物不賤, 賤物不好。

-도흐 거시 빈디디 아니코 빈딘 거시 도티 아니니라(<鬮朴> 상15앞)

현대역: 좋은 물건은 싸지 않고 싼 물건은 좋지 않다 하였다.

장면 설정: (朴6) 비단을 구입한 사람이 친구를 만나 비단 값을 맞춰보라고 한다. 친구가 비단의 색상과 무늬, 씨날(經緯)의 고른 정도를 보고 정확하게

값을 맞추자(7발에 銀子 12냥) 비단 구입자가 이 속어를 사용하여 물건은 값에 따라 품질이 다름을 표현하고 있다.

<老朴>에 나타난 속어는 대부분 대화 내용과 분위기에 알맞는 것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한 장면의 대화 내용을 요약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속어의 특징을 잘 살려서 실제로 대화 장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4.2 <老朴> 諸刊本에서 熟語의 변화

<老朴>의 제간본에 나타난 속어들을 살펴보면 기본 내용은 동일하나 일부 형태가 변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老乞大》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 1) A/B/C-三人同行, 小的苦。(〈原老〉 10앞)
D/E-自古道: 三人同行, 少的吃苦。(〈老新〉 11앞)
- 2) A/B/C-慣曾出外偏憐客, 自己貪盃惜醉人。(〈原老〉 12앞)
D/E-俗語說: 慣曾出外偏憐客, 自己貪盃惜醉人。(〈老新〉 13뒤)
- 3) A/B/C/E-好看千里客, 萬里要傳名。(〈原老〉 12뒤)
D-俗語說: 好看千里客, 萬里要傳名。(〈老新〉 14뒤)
- 4) A/B/C-官憑印信, 私憑要約。(〈原老〉 25앞)
D-古人說: 官憑印信, 私憑畫押。(〈老新〉 28뒤)
E-官憑印信, 私憑畫押。(〈重老諺〉 하18앞)
- 5) A-前不蒼村, 後不蒼店。(〈原老〉 3뒤)
B/C/D/E-前不着村, 後不着店。(〈老新〉 4앞)
- 6) A/C-常言道: 常做賊心, 莫偷他物。(〈原老〉 10앞)
B/D/E-常言道: 常防賊心, 莫偷他物。(〈老新〉 11앞)
- 7) A/B/C-一客不犯二主。(〈原老〉 15앞)
D-一客不勞二主。(〈老新〉 47앞)
E-一客不煩二主。(〈重老諺〉 47앞)
- 8) A-常言道: 掩惡揚善。(〈原老〉 31뒤)

- B/C/D/E-常言道: 隱惡揚善。(〈老新〉 37앞)
- 9) A-休道黃金貴, 安樂最直錢。(〈原老〉 21앞)
 B/C/E-休道黃金貴, 安樂直錢多。(〈重老諺〉 하4앞)
 D-別說黃金貴, 平安直錢多。(〈老新〉 24앞)
- 10) A/B/C-四海皆兄弟。(〈原老〉 39뒤)
 D/E-四海之內皆兄弟。(〈老新〉 45뒤)
- 11) A/B/C/D-常言道: 馬不得夜草不肥, 人不得橫財不富。(〈原老〉 9뒤)
 E-常言道: 人不得橫財不富, 馬不得夜草不肥。(〈重老諺〉 상29앞)

이상 예문들에 의하면 초기 간본인 <原老>에 나타난 속어가 후기 간본에 서는 일부 변화된 양상을 보이는데 우선 속어 앞에 예 1)의 “自古道”, 예 2)의 “俗語說”, 예 3)의 “古人說”, 예 4)의 “俗語說”과 같은 대화체 형태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일부 어휘 또는 단어 결합의 형태가 변화된 것으로는 예 5)의 “著>着”, 예 6)의 “做>防”, 예 7)의 “犯>勞>煩”, 예 8)의 “掩>隱”, 예 9)의 “休道>別說; 安樂>平安; 最直錢>直錢多” 등이 있으며, 일부 어휘가 추가된 것으로 예 10)의 “之內”, 앞뒤 구절이 바뀐 것으로 예 11) 등 일부 변화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老乞大》에서는 초기 간본의 속어에서 元代 漢語의 특징도 발견되는데 후기 간본에서는 변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 12) A-缸投水裏出來, 旱地裏行不得, 車子載著有: 車子水裏去呵, 水裏行不得, 缸裏載著有。(〈原老〉 31뒤)
 B/C-船是從水裏出, 旱地裏行不得, 須要車子載着: 車子水裏去時, 水裏行不得, 須要船裏載着。(〈齣老〉 하43뒤)
 D/E-自古說: 船從水出, 旱地上是行不得的: 車從地行, 水裏是行不去的。(〈老新〉 36뒤)
- 13) A-一箇手打呵, 響不得有: 一箇脚行呵, 去不得有。(〈原老〉 31뒤)
 B/C-一箇手打時, 響不得, 一箇脚行時, 去不得。(〈齣老〉 하44앞)
 D/E-一箇把掌打不響的, 一箇脚是不能走的。(〈老新〉 36뒤)

이상 예문의 12)·13)에서는 전치사 “投>從”, 후치사 “呵>時”의 변화¹⁰⁾와

종결어미 ‘有’의 생략¹¹⁾ 등이 발견되는데 《老乞大》 초기 간본의 속어에 반영된 元代 漢語의 특징이 후기 간본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朴通事》 제간본에 나타난 속어를 살펴보기로 한다. 《朴通事》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간본에 사용된 속어가 후기 간본인 <朴新諺>에서는 적지 않게 삭제되었고 일부 속어는 변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삭제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24개의 속어가 후기 간본인 <朴新諺>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 1) A/B-古人道: ……無子無孫, 盡是他人之物.(〈齣朴〉 상7앞)
- 2) A/B-千零不如一頓.(〈齣朴〉 상13앞)
- 3) A/B-覓得高麗錢, 大快三十年.(〈齣朴〉 상33앞)
- 4) A/B-萬事不由人計較.(〈齣朴〉 상64앞)
- 5) A/B-說道: 人生七十古來稀.(〈齣朴〉 상76앞)
- 6) A/B-常言道: 今日脫靴上炕, 明日難保得穿.(〈齣朴〉 상76앞)
- 7) B-古人道: 因風吹火, 用力不多.(〈朴諺〉 중2앞)
- 8) B-故人誠信病中知.(〈朴諺〉 중16뒤)
- 9) B-古人道: 隔簾聽笑語, 燈下看佳人.(〈朴諺〉 중18앞)
- 10) B-常言道: 常防賊心, 莫偷他物.(〈朴諺〉 중25앞)
- 11) B-妻賢夫省事, 官清民自安.(〈朴諺〉 중29앞)
- 12) B-貌隨福轉.(〈朴諺〉 중31뒤)
- 13) B-常言道: 逢山開路, 遇水迭橋.(〈朴諺〉 중33앞)
- 14) B-常言道: 小心必勝.(〈朴諺〉 중36앞)
- 15) B-古人道: 家齊而後國治.(〈朴諺〉 중45앞)
- 16) B-老實常在, 脫空常敗.(〈朴諺〉 중47뒤)
- 17) B-常言道: 矮子呵欠, 氣兒不長.(〈朴諺〉 중51앞)
- 18) B-福不至, 萬事難.(〈朴諺〉 중53앞)

10) 여기서 형태인 ‘-呵’의 이러한 용법은 몽고어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元朝秘史》에 의하면 ‘阿速’(-[b]asu/estü)의 대역문으로 ‘-呵’가 사용되었고 가정이나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며, ‘[b]’는 모음 뒤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출고:2010b:314)

11) 종결어미 형태로 사용된 ‘-有’는 몽고어의 “buī, bolaj, bülüge, a-, bayi-, bol-” 등 형태의 영향을 받은 元代 北京語의 특징으로 추정된다. 즉 교착적 문법구조를 갖고 있는 몽고문어에서는 繫辭로서 문장을 종결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元典章》과 《孝經直解》와 같은 元代的 기타 文獻들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로 ‘-有’가 사용된 용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출고:2010b:316)

- 19) B-仰面唾天。(〈朴諺〉 중58앞)
- 20) B-古人道: 殺人一萬, 自損三千。(〈朴諺〉 하25앞)
- 21) B-寸心不昧, 萬法皆明。(〈朴諺〉 하27뒤)
- 22) B-常言道: 一箇去, 百箇來。(〈朴諺〉 하34앞)
- 23) B-常言道: 寸鐵入木, 九牛之力。(〈朴諺〉 하36뒤)
- 24) B-接客不如送客。(〈朴諺〉 하39앞)
- 25) B-常言道: 好兒不看春, 好女不看燈。(〈朴諺〉 하49앞)
- 26) B-古人道: 君子不出戶而知天下。(〈朴諺〉 하61뒤)

다음은 《朴通事》의 제간본에서 동일한 내용의 속어가 일부 변화된 형태로 나타난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A/B-家貧不是貧, 路貧愁殺人。(〈飜朴〉 상54앞)
C-俗語說: 家貧不是貧, 路貧愁殺人。(〈朴新諺〉 상52뒤)
- 2) A/B-張弓有別力, 飲酒有別腸。(〈飜朴〉 상55앞)
C-古道: 張弓有別力, 飲酒有別腸。(C〈朴新諺〉 상54뒤)
- 3) B-大人不見小人過。(〈朴諺〉 중3앞)
C-自古道: 大人不見小人過(〈朴新諺〉 중13뒤)
- 4) B-有緣千里能相會, 無緣對面不相逢。(〈朴諺〉 중19앞)
C-自古道: 有緣千里能相會, 無緣對面不相逢。(〈朴新諺〉 중27뒤)
- 5) B-一針投海底, 尙有可得日: 一失人身後, 萬劫再逢難。(〈朴諺〉 중24앞)
C-自古道: 一針投海底, 尙有可得日: 一失人身後, 萬劫再逢難。(〈朴新諺〉 중30뒤)
- 6) B-死不在老少。(〈朴諺〉 중49뒤)
C-常言道: 人死不在老少。(〈朴新諺〉 중54뒤)
- 7) B-拙匠人, 巧主人。(〈朴諺〉 하6앞)
C-常言道: 拙匠人, 巧主人。(〈朴新諺〉 하11앞)
- 8) A/B-常言道: 狗有糞草之恩, 馬有垂繩之報。(〈飜朴〉 상43뒤)
C-常言說得好: 狗有糞草之恩, 馬有垂繩之報。(〈朴新諺〉 상42앞)
- 9) B-先小人後君子。(〈朴諺〉 중50앞)
C-咱們先小人而後君子好。(〈朴新諺〉 중55앞)

이상 예문들은 《朴通事》의 후기 간본에서 속어 앞에 예 1)의 “俗語說”, 예 2)의 “古道”, 예 3)·4)·5)의 “自古道”, 예 6)·7)의 “常言道” 등 형태가 추가되

었고, 예 8)에서 “常言道>常言說得好”, 예 9)에서 “咱們先小人而後君子好”와 같이 속어의 활용에 있어서 더욱 구어체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10) A/B-常言道: 話不說不知, 木不鑽不透。(〈朴辭〉 상14앞)
C-常言道: 話不說不明, 木不鑽不透。(〈朴新諺〉 상16앞)
- 11) A/B-常言道: 人貧只爲慳, 少債快說謊。(〈朴辭〉 상35뒤)
C-常言道: 人貧只爲慳, 少債價說謊。(〈朴新諺〉 상35앞)
- 12) B-常言道: 命來鐵也爭光, 運去黃金失色。(〈朴諺〉 중46앞)
C-常言道: 時來鐵也爭光, 運去黃金失色。(〈朴新諺〉 중51뒤)
- 13) B-古人道: 苦盡甘來。(〈朴諺〉 하15앞)
C-古人道: 苦盡話來。(〈朴新諺〉 하19앞)
- 14) B-閉門屋裏坐, 禍從天上來。(〈朴諺〉 하16뒤)
C-閉門家裏坐, 禍從天上來。(〈朴新諺〉 하20뒤)
- 15) B-古人道: 送君千里, 終有一別。(〈朴諺〉 하39뒤)
C-古人道: 送君千里, 終須一別。(〈朴新諺〉 하40뒤)
- 16) B-古人有言: 賣劍賣與烈士, 臘粉贈與佳人。(〈朴諺〉 하62앞)
C-古人道: 賣劍贈與烈士, 紅粉付與佳人。(〈朴新諺〉 하59뒤) 筧
- 17) B-常言道: 能蓋萬間房, 夜眠一厦間。(〈朴諺〉 하13뒤)
C-常言道: 摠蓋萬間房, 夜眠只一厦。(〈朴新諺〉 하17뒤)
- 18) A/B-十箇指頭也有長的短的。(〈朴辭〉 상32앞)
C-十箇指頭也有長短的。(〈朴新諺〉 상32앞)
- 19) A/B-貴人難見。(〈朴辭〉 상37뒤)
C-貴人難見面。(〈朴新諺〉 상36뒤)

이상 예문들은 후기 간본에서 어휘 또는 단어 결합의 형태가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예 10)의 “知>明”, 예 11)의 “快>價”, 예 12)의 “命>時”, 예 13)의 “甘>話”, 예 14)의 “裏>家”, 예 15)의 “有>須”, 예 16)의 “賣與>贈與, 臘粉>紅粉, 贈與>付與”, 예 17)의 “能蓋>摠蓋, 一厦間>只一厦”, 예 18)의 “長的短的>長短的”, 예 19)의 “見>見面” 등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현존 《朴通事》 제간본에서는 元代 漢語의 특징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 失傳된 原刊本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자아내고 있다.

이 외에 《朴通事》의 후기 간본에서는 새로 추가된 속어의 용례도 찾아 볼

수 있다.

- 20) A/B-古人道：有酒有花，以爲眼前之樂；無子無孫，盡是他人之物。(〈齣朴〉 상7앞)
 C-古人道：有酒有花，以爲眼前之樂。又道：人生行樂耳，須富貴何時。又道：天下無不散之筵席。(〈朴新諺〉 상7뒤)
- 21) A/B-常言道：高碁輪頭盤。(〈齣朴〉 상24앞)
 C-常言道：高碁輪頭盤。又道：勝敗乃兵家之常。(〈朴新諺〉 상27앞)
- 22) A/B-易經云：積善之家，必有餘慶。(〈齣朴〉 상31앞)
 C-易經上說：積善之家，必有餘慶。佛經上說：要知前世因，今生受者是。
 (〈朴新諺〉 상31앞)
- 23) B-妻賢夫省事，官清民自安。(〈朴諺〉 중29앞)
 C-善惡到頭終有報，只爭來早與來遲。(〈朴新諺〉 중35뒤)

이상 예문 20)에서는 <齣朴>에 사용된 속어의 뒷 구절인 “無子無孫，盡是他人之物”이 <朴新諺>에서 삭제되고 그 대신 “又道：人生行樂耳，須富貴何時”와 “又道：天下無不散之筵席”이 추가되었다. 예문 21)에서는 <朴新諺>에 “又道：勝敗乃兵家之常”이 추가되고 예문 22)에서는 “佛經上說：要知前世因，今生受者是”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예문 23)에는 전혀 다른 속어로 교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5. 熟語 설정에 나타난 문제점

<老朴>에 사용된 속어는 대부분 대화 내용과 잘 어울리게 설정되어 있어 이른바 ‘適材適所’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일부 어색한 용례도 발견되는데 그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 1) (朴22)這兩口兒夫妻好爽利。常言道：一夜夫妻百夜恩。

-이 두 사람 부처 2장 영노술갑다 상넷말스매 닐오디 흐룻 밤 부처 일빅 밤 은
 헤라 흐느니라(<飜朴> 상47앞)
 현대역: 이 부부가 가장 지혜롭다. 속담에 이르기를 하룻밤에 맺은 부부가 백일
 밤의 애정을 쌓는다 하였다.

이상 예문은 《朴通事》(朴22)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나오는
 데, 재능과 재력을 겸비한 한 官人(19세)이 미모에다 손재주가 좋은 娘子(16
 세)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내용이다. 한 화자가 화려한 결혼식과 중매인이 푸짐
 한 사례비(10냥 銀子)를 받은 것을 부러워하면서 이 속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와 같은 속어를 사용한 것이 대화의 전반 내
 용과 분위기에 잘 어울리지 않는 설정으로 보인다.

(2) 갑: 姐姐, 我看上你, 飯也好生喫不得. 常言道: 男兒無婦財無主, 婦人無夫身
 無主. 怎副劃我這一場愁?
 을: 咳, 你說甚麼話! 我夫主知道時了不得. 再來休說這般不曉事的話.
 -常言에 닐오디 스나회 겨집이 업스면 지물이 님재 업고 겨집이 지아비 업스면
 몸이 님재 업다 흐느니(<朴諺>중17뒤)
 현대역: 속담에 이르기를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 임자 없는 재물이고 여자는 남
 편이 없으면 임자 없는 몸이라고 하였다.

이상 예문은 《朴通事》(朴49)에서 바람기가 있는 한 남자가 유부녀를 유혹
 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아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상대
 방이 유부녀임을 모를 리 없고 부인의 대화에서도 남편(夫主)이 알면 큰일 나
 니 그런 칠없는 말은 하지 말라고 거절한다. 그런데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임
 자 없는 몸”이라는 속어를 사용한 것은 대화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남자의 끈질긴 공세에 처음에는 유혹을 단호히 거
 절하던 부인이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는 만남이 있을 것이라면서 흔들리는 모
 습을 보인다.

3) (朴54)一官人就便娶了那媳婦, 那媳婦道: 妻賢夫省事, 官清民自安.

-훈 官人이 임의셔 더 媳婦를娶호려하니 더 媳婦 닐오디 妻 어덜면 지아비 일이 덜리이고 官이 말그면 帛성이 스스로 편안호느니라(<朴諺> 중29앞)
현대역: 한 관인이 그녀를 아내로 맞으려 하자 그녀가 이르기를 “아내가 어질면 남편이 덜 힘들고 관청이 맑으면 백성이 스스로 편안하다” 하였다.

이상 예문은 《朴通事》(朴54)에서 고객을 살해하고 재물을 빼앗는 악덕 전당포(解當庫) 주인(李大舍)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전당포 주인이 본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본처를 구타하자 본처가 관가에 고발을 하여 전당포 주인이 결국 사형에 처하게 되고 그녀는 한 官人과 결혼을 하여 잘 살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종결 부분에서 해당 숙어 앞에 ‘那媳婦道(그 아내가 이르기를)’라 하여 그의 本妻가 이 숙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화 내용과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설정으로 보인다.

한편 <朴新諺>에서는 동일한 장면을 객관적인 서술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有一個官人就娶了他的大小老婆，把那偌大的家財盡行帶去，與他人享用，這正是：
善惡到頭終有報，只爭來早與來遲。(<朴新諺> 중35뒤)

현대역: 한 관인이 그의 본처와 첩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많은 재산을 가져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善과 惡은 이르고 늦은 차이는 있지만 종국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應報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상 예문과 같이 <朴新諺>에서는 한 官人이 전당포 주인의 본처와 첩을 모두 아내로 맞아들이고 전당포 주인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 기술하면서 第三者의 입장에서 이것이 바로 “善과 惡은 종국에 이르면 반드시 그에 대한 應報가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형식으로 수정한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분석된다.

6. 맺음말

이상 <老朴>에 나타난 熟語의 사용 실태와 제간본에서의 변화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老乞大》에서는 기초 단계 교재인 만큼 18개의 숙어가 수록되어 그 양이 많지는 않으나 대화 내용과 분위기에 알맞게 잘 설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朴通事》에서는 무려 72개의 숙어가 수록되었는데 이는 고급 단계의 교재에 어울리는 것으로 당시 <老朴>의 편찬자들이 숙어의 습득에 큰 비중을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숙어의 위치 설정에 있어서는 대부분 대화 장면의 종결 부분에 대화 내용을 요약하는 형식으로 배정하였는데 이것은 숙어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설정 방식은 숙어의 습득에 있어서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朴通事》의 후기 간본에서는 새로운 숙어(5개)가 일부 추가되기도 하였으나 또한 무려 26개의 숙어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老乞大》는 후기 간본에서 일부 숙어가 변화된 양상을 보이지만 삭제된 용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朴15) 覓得高麗錢, 大快三十年” 등과 같이 일부 숙어가 시대적 변화로 하여 도태된 것도 있겠지만 주로는 《朴通事》의 후기 간본이 《老乞大》에 비해 수정의 폭이 훨씬 큰 데서 기인된 것으로 짐작된다. 《老乞大》의 초기 간본에는 元代 漢語의 특징을 지닌 숙어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失傳된 《朴通事》 原刊本の 숙어에 대한 궁금증을 더한층 자아내기도 한다. 두 교재에서 중복하여 사용된 숙어는 5개밖에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숙어의 선정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대화 장면의 설정에서부터 그 내용에 어울리는 숙어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당시 중국어에 유행되던 숙어의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老朴>이 외국어 교육의 유구한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훌륭한 교재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교재가 오늘날의 중국어 교재 편찬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參考文獻 >

- 金文昌(1990), <熟語 概念論>, 《韓國學研究》 2, 仁荷大學校韓國學研究所.
- 金胤淑(2001), <中國現代常用俗談과 그 教育的 活用 研究>, 韓國外大 교육대학원.
- 文炳純·李茉娜(2010), 《실용 중국성어속담》, 경남대학교 출판부.
- 朴榮順(1985), <慣用語에 대하여>, 《국어교육》 53,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
- 梁伍鎭(2000), <論元代漢語《老乞大》의 語言特點>, 《中國言語研究》 第10輯, 韓國中國言語學會.
- _____ (2010a), <韓·中 慣用語辭典의 편찬에 대하여>,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6輯, 中國語文論譯學會.
- _____ (2010b), 《漢學書研究》, 서울 博文社.
- 육훈(1997), <中·韓 兩國의 俗談 比較 研究-中國 歇后語와의 比較研究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54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李孝心(2006), <중국어 문화교육에서의 속어 활용방안 연구-제7차 교육과정 중심으로>, 公州大學校 教育대학원.
- 田仙珠(2007), <속어를 활용한 중국 문화 교수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崔希亮(2005), 《漢語熟語與中國人文世界》, 北京語言大學出版社.

< 中文提要 >

熟語是反映一個民族的歷史、社會及文化背景的特殊語言形式，這種語言形式具有很強的表達功能，因此，要熟練地掌握某種語言，對熟語的學習和運用是必不可少的。但是，由於熟語所負載的文化內容豐富而複雜，正確地習得和運用熟語却并非易事。《老乞大》和《朴通事》是幾百年來我國培養漢語譯官時使用的漢語會話教材，本論文着重考察此兩種教材所使用

的熟語種類及其在諸版本裏的變化狀況。據考察《老乞大》里使用了十七個熟語，《朴通事》里共收錄七十二個熟語，而且絕大多數設置在對話場面的結尾部分。據本文分析當時流行的漢語熟語非常豐富，而且此兩種教材在熟語的選擇及設置語言環境方面，即使個別用例有些生硬、不自然，但大部分使用得體、恰如其分，可以看出當時的編寫者們為掌握熟語而付出的心血。這對於今天的編纂漢語教材，也將提供實用而有效的參考價值。

關鍵詞：老乞大、朴通事、熟語、慣用語、元代 漢語

| | | | | |
|-----------|------------|-----------|-----------|------------|
| 원고접수일 | 심사일정 | 1차수정 | 게재확정 | 출간 |
| 2010.9.20 | 2010.10.30 | 2010.11.6 | 2010.11.8 | 2010.11.30 |